대학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참여정도 및 학습만족도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Motive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Learn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Proportion and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한 승 진 (한서대 평생교육원 부원장) · 양 승 규 (한서대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김 영 문 (충남서부상공회의소) · 차 경 문 (한서대 평생교육원) · 황 창 주(대신증권)

To promote efficiency for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would be the desirable operation plan for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run by th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e.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verification outcomes of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domain by the participation motive of the lifelong learner showed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detailed domain. To put it m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domain regarding the educational contents; the learning motive refers to the educational contents, the internal motive refers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xternal motive refers to the lecturers, and the occupational motive refers to the employee service.

Second,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motive of the lifelong education learner, the difference of the participation proportion(the participation frequency, the participation time, the participation attitude, the participation period) showed high in the occupation motive and the learning motive refers to the participation frequency, and the external motive refers to the participation time
and the internal motive refers to the participation attitude.

Third, the verification outcomes of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tion propor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learner and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showed considerable mutuality in the participation frequency and the participation attitude.

키워드 : 평생교육, 참여동기, 참여만족. 참여정도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e, participation satisfaction. participation proportion

Ⅰ. 서 론

197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대학의 평생교육 참여는 1980년대에 이르러 대학의 새로운 역할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급격한 변화를 체험한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대학발전의 한 측면이며 평생교육을 기본원리로 하는 세계교육 개혁운동의 반영이기도 하다(성낙돈,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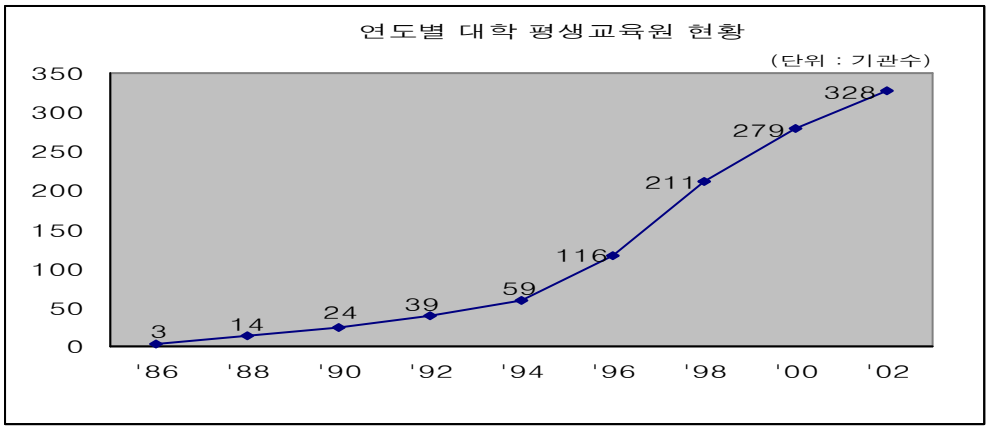
현재 각 대학에서는 평생학습의 역할 수행이 제2의 대학 본연의 핵심 기능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형적이고 형식적(formal education)인 제도의 프레임(frame) 속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 형식교육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해 왔으나 이제 각 대학은 평생학습의 요체로서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요구 충족 기능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대학도 이제는 전문직업인의 열린 순환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대폭 개방되는 체제로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김길자 외, 2000)이라는 주장이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미란(1997)은 한국대학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평생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학습요구에 따라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선 학습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학평생교육은 소비자인 수강생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소비자에 맞는 환경과 교육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그림 1>에서와 같이 1990년 24개교에서 2002년 11월 현재 328개교(교육인적자원부, 2002: 10)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적인 증가 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또한 재고되어야 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한 질 높은 전문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근본적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현상(참여동기, 참여만족)을 이해하고 아울러 참여동기와 참여현상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대학평생교육참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대학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향후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향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도별 대학평생교육원 개설 현황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에 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해석상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이론적 고찰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관련 문헌에 기술된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해 보고 이를 기초로 통합적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랑그랑(Lengrand, 1965)은 평생교육에 대해 정의하기를 "평생교육은 한 인간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전체의 교육(수평적 차원)의 총합"이라고 함으로써 교육의 통합성과 종합적 교육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다베(Dave, 1976)는 평생교육을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활동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의 평생을 통한 개인적, 집단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도수(1997)는 "평생교육은 사적 교육의 단계인 개인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단계에서, 공적교육의 단계인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간의 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모든 교육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 재편하려는 교육체제개혁의 지도이념이다."라고 개념을 제시하면서, 평생교육은 생활의 질 향상의 가치추구와 자아실현, 세계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구조적 틀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분석, 종합하여, 인간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을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신분을 초월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우리나라 대학평생교육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동안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전통에 치중해 왔고 봉사라는 측면을 도외시해온 결과였다(한준상 외, 1997: 22).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 역사는 1970년대 들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된 형태로의 대학 평생교육이 시작되었다. 1970년 12월 대구 계명대학교에 시민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71년 1월 6일 대구시와 협력으로 시민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을 위한 제1기 주부시민대학 강좌가 대학 평생교육의 시발로 볼 수 있다(한국대학평생교육협의회, 2002: 44).

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1980년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선언하는 헌법조항(헌법 제27조 제2항)이 마련된 후, 1982년 사회교육법, 1983년 사회교육법 시행령, 1985년 사회교육법 시행규칙, 그리고 1987년 10월 29일(헌법 제31조 제5항)이 공포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최초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을 신고한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신고일 1986. 1. 20)[1] 이다.

그 후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들이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금오공대, 전북대학교가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하면서 국립대학들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86년 3개 기관이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범주는 관련 직종 명을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교양교육과 전문인 양성 등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교양교육의 범주에 실내디자인,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중소기업 경영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설치

1)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설립 신고일은 이화여대 이후, 교급별로 최초 신고일이 전문대학(대림대학, 1986. 3. 21), 국립 대학교(밀양대학교, 1988. 2. 6), 교육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 1995. 2.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1997. 5. 13), 대학원대학교(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1998. 6. 22), 기능대학(창원기능대학, 1999. 12. 24), 각종학교(한민대학, 2000. 7. 10)이다(대평교협 요람, 2004: 389-401).

과정은 대학의 인적, 물적(시설 및 장비)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개설 학과와 관련하거나 유사한 강좌로 운영하며, 교양강좌, 영어, 컴퓨터 등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직업기술 강좌 위주로 운영하되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 또는 요구를 반영하여 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3. 외국대학에서의 평생교육

1) 영국

영국의 평생교육 관계법은 1944년 제정된 교육법(Education Act)과 1964년의 산업훈련법(Industrial Training Act)과 1973년 고용훈련법(Employment and Training Act)이 있다(김종서 외, 2002: 2). 그러나 그 이전에 영국에서는 대학개방이 실시되었다.

영국에서의 대학개방은 당시 고등교육에 있어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일반대중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1873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작된 대학 확장사업은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그 후 영국에서 일반 대중화되었다(진중원, 1988: 7-34). 영국의 대학개방에는 숙박제칼리지(Residential collage)와 노동자교육협회(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

숙박제칼리지(Residential collage)는 1884년 런던의 동남단 빈민가에 설치된 '토인비홀' 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학인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민의 교육활동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 각 공업도시의 빈민가에 이 명칭의 사회 구제사업단에 영국 사회의 지성인이 뛰어들어 활발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오늘날에 있어서 숙박제 칼리지의 수학기간은 주말 이용, 1-2주, 2개월 등 다양하다. 교육내용은 비직업적인 정치, 사회, 경제가 중심이고 그 밖에 교양, 오락적인 것으로 하나의 코스를 선택하여 전문화한다.

2) 미국

지방자치제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이지만 평생교육제도는 연방정부법에 의하여 발달해 왔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14년의 스미스-레버법(Smith-Lever Act), 1917년의 스미스-휴법(Smith-Hughes Act)과 1920년의 스미스-뱅크헤드법(Smith-

Bankhead Act)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농촌발전을 위한 대학의 참여, 성인교육을 위한 공립학교의 이용과 성인의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발달시켰다(김종서 외, 2002: 303). 미국의 대학이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부터였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미국의 평생교육은 강사, 재정, 대학의 학문지향적 풍토, 다른 성인교육형태의 발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과 다른 미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때문에 정체를 면치 못했다. 미국의 대학확장 활동은 1914년 The Smith Lever Act, 1915년 미국대학확장협회(National University Extension Association)의 조직 등에 의해 촉진되었다. 미국의 평생교육은 미국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현직 재교육의 장으로 발달해왔다(한준상 외, 1997: 15).

3) 일본

일본에서의 평생교육제도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관련법규[2] 등과 유사하며, 명치유신 이후에 전개된 사회변화운동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관련법규는 일본 헌법 제26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구체화된 개별 법률인 교육기본법과 사회교육법, 평생학습진흥법(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정비에 관한 법률)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1946년에 제정된 일본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00: 36-37).

일본의 경우 대학평생교육차원의 대학개방에 관한 논의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대학교육 이념은 1886년에 공포된 제국대학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수요에 응하는 학술기예를 교수하고 그 심오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대학과 평생교육을 결부시킨 계기는 1911년의 통속교육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각 제국대학 및 직할학교 등에서 통속강연회를 개최하고 일반 대중에 청강하도록 권장한데 있다(한준상 외, 1997: 19).

---

2) 헌법 제31조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의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의 국민이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24.

4.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 참여동기

학습 참여동기란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 즉, 까닭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을 하고 싶은 마음' 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의 심리학적인 설명 용어가 바로 동기(motive)이다.

Hole(1961)은 시카고 지역의 22명의 평생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학습 참여동기 유형들로 구분하였다. 먼저 목표지향형 참여자들은 학교교육을 받는 목표와 유사한 이유로 계속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로서 실용주의적, 기능주의적 목표를 지니며 "조직적인 강의나 코스에 관심을 갖고 기술자격증이나 졸업장 획득" 등의 의도적인 목적을 지닌 참여자들이며, 활동지향적 참여자들은 교육기관을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우정을 갖는 개방된 장소이며 사회적으로는 안정된 사교장소로 인식하며 교육은 고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인간관계 유지, 개선, 확대"라는 의도적 목적을 지닌 참여자들이고, 학습지향적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개념을 지녀 자신을 학습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교육은 계속활동이라기 보다는 매우 일상적인 일 중의 하나로서, "지식자체에 관심"이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Rubenson(1977)은 두 가지 종류의 기대가 성인교육 참여 동기형성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두 가지 유형의 기대란 하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내적기대로서 자신이 교육에 참여해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다른 하나는 외적기대이며 이는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될 모든 종류의 성과에 대한 기대로서 두 종류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강하게 형성될 때 강한 참여동기가 결정됨을 밝히고 있다.

최운실(1986)은 성인교육 참여동기는 사회적 관계형성, 사회적 인정 및 참여, 외적 기대충족, 직업적 성취 및 전문성 함양, 현상의 변화와 발전, 지적 호기심의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련요인으로 앞에서 제시된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영향요인을 <표 1>과 <표 2>를 정리, 분석 절차를 거쳐 학문적 기대,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 직업적 기대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 참여동기

연구자	과 정		
	① ~에서		② ~으로
Hole	목표지향형 (실용주의적, 기능주의적 목표 지향)	조직적 강의나 교육코스에 관심	체계화된 지식습득
		기술자격증 및 졸업장 획득	학문성취(결과), 전문기술 습득
	활동지향형	사회적 인간관계 유지, 개선, 확대	대인관계, 사회봉사
	학습지향형	지식자체에 대한 관심	학문탐구
Rubenson	자신에 대한 내적기대, 자신에 대한 외적기대		학문탐구, 교양함양, 사회봉사, 대인관계
Boshier	전문성함양, 지역사회봉사, 외적기대 ,사회적접촉 , 사회적자극 , 지적흥미		전문기술습득, 사회봉사, 직장관계, 학문탐구
Cross	개인의 성향적 특성과 교육에 대한 태도		당면개인문제
	참여를 통한 목적성취 기대		당면개인문제
	생애전환		미래노후준비
	교육참여의 기회와 저해요인		교육참여기회 및 저해요인 (가정, 대인, 직장관계)
최운실	사회적 관계형성, 사회적 인정 및 참여		사회봉사
	외적기대 충족		대인관계
	직업적 성취 및 전문성 함양		직장관계, 전문기술습득
	현상의 변화와 발전		여가, 휴식, 교양함양
	지적호기심		학문탐구

< 표 2 >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 참여동기의 유형 분류

유사 유형별 변인 정리		비 고
~ 에 서	~ 으 로	
체계화된 지식습득	학문적 기대	
학문탐구		
학문성취(결과)		
당면개인문제	내부지향적 기대	교육에 대한 기대 영향이 학습자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요인
여가, 휴식, 교양함양		
미래노후준비		
대인관계	외부지향적 기대	교육에 대한 기대영향이 학습자 당사자보다는 제3자에게 미치는 요인
가정 관계(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열할 등)		
사회봉사		
직장관계	직업적 기대	
전문기술습득		

5.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참여 정도

일반적으로 학습참여정도란 참여와 정도의 합성어로 참가하여 관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grade, degree), 분량(measure), 비율(rate), 범위(extent), 한도(limit)라고 할 수 있다.

조성희(2001)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인 생활체육과정의 댄스스포츠 과정을 통하여 도시주부의 참가동기와 참가정도 및 만족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참여정도가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강도 등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댄스스포츠 참가동기 중에서 신체 및 기능적 동기와 성취동기가 참가빈도, 참가기간, 참가강도가 여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리고, 주부의 댄스스포츠 참가정도가 여가만족도 즉, 휴식적, 생리적 및 환경적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선(2004)은 주부의 댄스스포츠 참가정도와 참여만족의 관계 연구에서, 참여정도가 참여만족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참가기간, 참가빈도, 참가시간임을 밝히고 있다

이광미(2003)의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가정도에 따른 참가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참여정도가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여시간이 내적동기에서 참여빈도는 외적동기와 무동기에서 주요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김덕일(2003)은 테니스동호인의 동호회 참여정도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참여강도, 참여빈도 그리고 참여기간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련요인으로 앞에서 제시된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정도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요인과 대학평생교육 학습자들의 교육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도를 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기간, 참여태도로 설정하였다.

6.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 참여만족

일반적으로 만족이란 행동과학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에 의하여 동기,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언어개념으로, 학습활동 만족이란 인간 행동의 일부 즉 학습경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만족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Hunt(1977)는 만족의 개념을 경험에서 출발한 형태로서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리 즐거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기대한 것만큼 즐겁지 않으면 불 만족' 이라고 하여 만족/불만족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의 평가' 라고 하였다. 이러한 감정의 평가는 사람들이 이전부터 어떠한 활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호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Smith & Offerman(1989)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만족요인으로는 학습자의 교육내용과 방법의 만족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 외에도 교육시설 및 설비, 인간관계, 담당 직원서비스도 포함하였다.

강철용(1999)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만족요인으로는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기법, 교육환경의 적절성,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진안(1997)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만족요인으로는 교육내용, 강사의 자질, 교육방법으로 구분하였다. 박미경(2001)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만족요인으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으로 구분하였다. 김재곤(1998)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만족요인으로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기 및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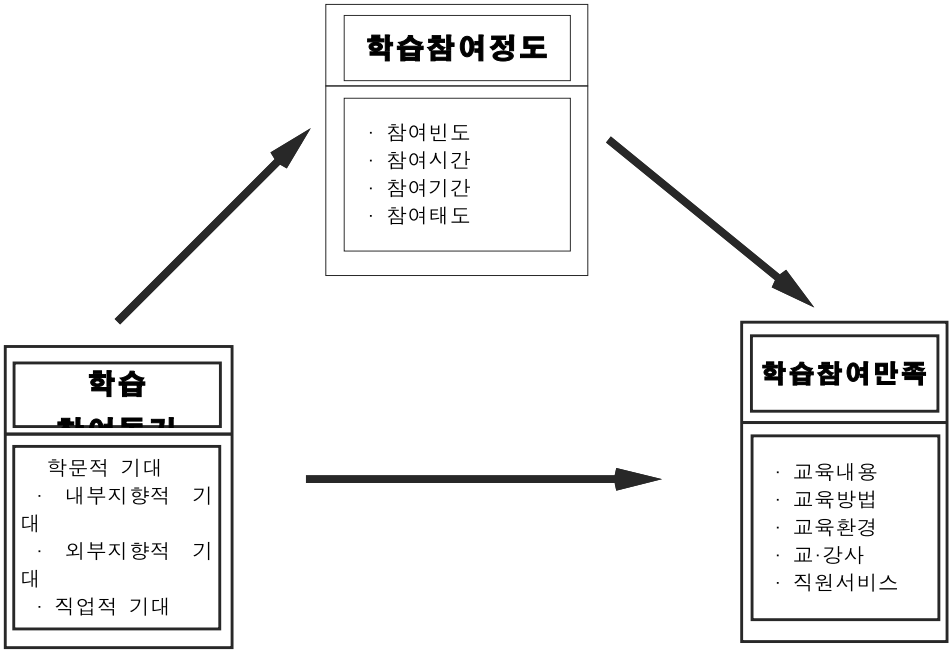
이상으로 만족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학습만족이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하여 성취, 인정, 보상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적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련요인으로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론을 통합 분석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교·강사, 직원서비스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 실시의 효율화와 교육성과의 제고 대학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평생교육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동기와 학습참여정도 및 학습참여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이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대학 평생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동기와 참여정도 및 참여만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라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만족 관심영역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1-1> : 학문적 기대가 높은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동기에 의한 참여자보다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 내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동기에 의한 참여자보다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다.

<가설 1-3>: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동기에 의한 참여자보다 교·강사에 대한 관심영역에 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4> : 직업적 기대가 높은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동기에 의한 참여자보다 직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영역에 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라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학문적 기대와 직업적 기대가 높은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동기를 가진 참여자들에 비하여 보다 많은 참여빈도를 선호할 것이다.

<가설 2-2>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동기를 가진 참여자들에 비하여 보다 긴 참여시간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2-3> 내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동기를 가진 참여자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정도는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빈도는 참여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시간은 참여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3>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태도는 참여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4>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기간은 참여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의 변수 중,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은 Likert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하였으며, 배경적 특성은 선택형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도구 및 설문지는 Hole(1961), Miller(1967), 최운실(1986), 박미경(2001) 등의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변수의 측정은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1)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 참여동기

참여동기의 일반적 의미는 교육에 참가해서 관계하고자하는 생각으로서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 즉, 까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학습행동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선택한 행동을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의 이론들을 통합 분석하여 학문적 기대, 내부지향

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 직업적 기대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정도

참여정도의 일반적 의미는 참가하여 관계하고자 할 때의 알맞은 한도나 사물의 고저 강약 장단 따위를 어림으로 잼을 의미한다. 이숭녕(1997)은 참여정도란 참여와 정도의 합성어로서 참가하여 관계하는 정도를 의미 하는, 도(grade, degree), 분량(measure), 비율(rate), 범위(extent), 한도(limit)라고 하고 하였다. 조성희(2001)는 참여정도란 참가빈도, 기간, 강도를 의미하며 각 요인에 따라 참가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참가빈도는 특정 개인이 학습활동에 직접참가하고 있는 횟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참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도 항목으로 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기간, 참여태도로 4개를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3)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 참여만족

참여만족의 사전적 의미는 행사에 참가하여 관계한 후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흐뭇함이나 충분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만족을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 부터 취하게 되는 긍정적이 심적 상태라고 정의 하며, 선행연구자들의 이론들을 통합, 분석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교•강사, 직원서비스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Ⅳ. 연구방법 및 결과

1.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 대상 범위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대학평생교육원에 정규 등록한 학습자를 모집단으로 선정 후, 그 중 충남 서북부 지역 7개 대학을 표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내용에 따라 선택형 명목척도와 5점 Likert 척도를 혼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설문의 효과를 위해, 대상학습자는 수강기간이 3개월 이상의 학습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으며 대학별로 각각 50명을 선정하여 총 400명을 대상으로 층화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387명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대학평생교육 학습자들의 참여동기와 학습참여정도 및 학습참여만족도의 차이분석을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의 분포는 여성이 52.2%로 남성(47.8%)에 비해 조금 더 많았으며, 연령층은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7.1%, 20대가 18.6%, 60대가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이 32.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고졸이 28.7%, 전문대졸 이상이 28.4%, 중졸이하가 7.0%로 각각 나타났으며, 직업은 사무직 회사원이 21.7%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가 13.7%, 전업주부가 10.3%, 기술직 회사원이 10.1%, 교육자가 9.0%, 임시직이 8.3%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구의 연소득은 2,000-3000만원 미만이 33.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3,000-4,000만원 미만이 24.8%, 1,000-2,000만원이 23.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70.8%로 대부분이었으며, 다음으로 미혼자가 14.2%, 이혼 또는 사별이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85	47.8
	여	202	52.2
연령	20대	72	18.6
	30대	140	36.2
	40대	105	27.1
	50대	32	8.3
	60세 이상	38	9.8

학력	중졸이하	27	7.0
	고졸	111	28.7
	전문대졸	110	28.4
	대졸	124	32.0
	대학원졸업이상	15	3.9
직업	공무원	31	8.0
	교육자	35	9.0
	종교인	20	5.2
	사무직회사	84	21.7
	기술직회사원	39	10.1
	자영업자	53	13.7
	임시직	32	8.3
	전업주부	40	10.3
	무직	22	5.7
	연구직	16	4.1
	학생	15	3.9
연소득	1,000만원 미만	36	9.3
	1,000만원-2,000만원미만	92	23.8
	2,000만원-3,000만원미만	130	33.6
	3,000만원-4,000만원미만	96	24.8
	4000만 원 이상	33	8.5
결혼상태	미혼	55	14.2
	기혼	274	70.8
	이혼또는사별	39	10.1
	별거 중	12	3.1
	기타	7	1.8
합 계		387	100.0

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타당성이란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하는 개념을 올바르게 측정했느냐를 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분석 방법은 요인의 수를 최소한으로 산출하고 최초 변인들이 지닌 정보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 방법은 있어서는 직각회전방법인 베리멕스 회전법(Varimax Rotating)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부하량이 0.4이상이며,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4개가 도출되었으며, 요인 1은 내부지향적 기대동기로 확인되었으며 분산설명력은 31.1%이었으며, 요인 2는 직업적 기대동기로 확인되었으며, 22.365%의 분산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요인 3은 외부 지향적 기대동기로 확인되었으며, 17.7%의 분산설명력을, 요인 4는 학문적 기대동기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10.6%의 분산설명력을 보였으며, 전체변수의 분산설명력은 81.9%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참여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성분			
	요인1 (내부지향적 동기)	요인2 (직업적 동기)	요인3 (외부 지향적 동기)	요인4 (학문적 동기)
A6	.906	-.042	-.107	-.110
A5	.895	-.084	-.088	-.113
A4	.875	-.117	-.137	-.040
A7	.873	-.054	-.040	-.130
A11	-.113	.938	.071	.045
A12	-.048	.933	.028	.132
A13	-.093	.924	.014	.050
A9	-.094	.022	.888	-.115
A8	-.029	.003	.886	-.197
A10	-.208	.088	.856	-.001
A2	-.044	.010	-.119	.882
A3	-.152	.052	.004	.851
A1	-.151	.184	-.224	.817
고유치(eigenvalue)	4.045	2.907	2.312	1.388
분산설명력(%)	31.116	22.365	17.786	10.677
누적분산설명력(%)	31.116	53.482	71.268	81.945

위에서 살펴본 참여 동기 요인의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각 요인들의 문 항간 내적 일 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값이 학문적 기대 요인의 경우 .8380, 내부지향적 기대 요인은 .9225, 외부 지향적 기대 요인은 .8703, 직업적 기대요인은 .9330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5> 참여동기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요 인	신뢰도 (Cronbach' α)
학문적 기대	.8380
내부지향적 기대	.9225
외부지향적 기대	.8703
직업적 기대	.9330

평생교육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1은 직원서비스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분산설명력은 22.2%이었으며, 요인 2는 강사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16.9%의 분산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요인 3은 교육내용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15.2%의 분산설명력을, 요인 4는 교육환경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11.0%의 분산설명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교육방

법 관련 요인으로 6.7%의 분산설명력을 보였으며, 전체변수의 분산설명력은 72.3%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평생교육 참여만족도 요인분석결과

문 항	성분				
	요인1 (직원서비스)	요인2 (강사)	요인3 (교육내용)	요인4 (교육환경)	요인 5 (교육방법)
F2	.891	-.119	.121	-.087	.107
F3	.890	-.167	.059	-.019	.113
F4	.878	-.157	.078	.029	.139
F1	.859	-.015	-.123	-.022	.073
E3	-.053	.852	-.057	-.141	.006
E2	-.162	.840	-.003	-.044	-.032
E1	-.061	.796	.128	.032	.045
E4	-.147	.764	-.123	-.158	.182
B3	-.007	-.021	.866	.014	.088
B2	.045	.047	.833	.064	.097
B4	-.088	-.095	.802	.021	.164
B1	.146	.028	.658	-.071	.108
D2	-.038	-.099	-.027	.902	-.005
D3	-.065	-.110	.050	.895	-.045
D1	.016	-.052	-.005	.883	.106
C2	.016	.004	.131	.021	.836
C3	.126	.118	.123	.052	.721
C1	.245	.033	.176	-.023	.703
고유치(eigenvalue)	4.010	3.059	2.743	1.993	1.219
분산설명력(%)	22.278	16.995	15.238	11.073	6.771
누적분산설명력(%)	22.278	39.273	54.511	65.584	72.354

위에서 살펴본 평생교육 참여만족도 요인의 문 항간 내적일 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값이 교육내용 만족도의 경우 .8003, 교육방법 만족도는 .6842, 교육환경 만족도는 .8803, 강사만족도는 .8455, 직원서비스 만족도는 .9187로 나타나 평생교육 만족도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7> 평생교육 참여만족 요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

문항	신뢰도 (Cronbach' α)
교육내용	.8003
교육방법	.6842
교육환경	.8803
강사	.8455
직원서비스	.9187

3) 가설 분석

(1) 가설 1의 검증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라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만족관심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의 검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참여동기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만족도

	학문적 기대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	직업적 기대	F
	M (SD)	M (SD)	M (SD)	M (SD)	
교육내용	4.72 (.55) A	3.23 (.56) B	2.96 (.44) C	3.30 (.65) B	194.129***
교육방법	3.64 (.56) A	3.22 (.52) B	3.22 (.48) B	3.50 (.78) A	12.579***
교육환경	3.48 (.58) B	4.91 (.45) A	2.98 (.50) D	3.16 (.72) C	247.372***
교강사	3.55 (.52) B	3.24 (.51) C	4.42 (.77) A	3.28 (.67) C	76.204***
직원 서비스	3.55 (.51) B	3.48 (.61) B	2.92 (.55) C	4.96 (.28) A	267.727***
전체만족도	3.79 (.34) A	3.61 (.30) B	3.30 (.41) C	3.64 (.30) B	35.574***

***p<.001

분석결과 평생교육 전체 만족도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학문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이 가장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부지향적 기대동기 집단과 직업적 기대 집단이었으며, 외부지향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의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학문적 기대동기와 직업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이, 내부지향적 기대동기와 외부지향적 기대 동기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내부지향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이 가장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문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 직업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 순이었으며, 외부지향적 기대동기 높은 집단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가설 1-2>은 지지되었다.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외부지향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이 가장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문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이

었으며, 내부지향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과 직업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의 교육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직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직업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문적 기대동기와 내부지향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이었으며, 외부지향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의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가설 1-4>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학문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부지향적 기대동기와 직업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이었으며, 외부지향적 기대동기가 높은 집단의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설 2의 검증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라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의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빈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라 참여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p<.001), 학문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88.2%가 일주일에 5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기대가 높은 집단 역시 93.3%가 5회 이상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지향적 기대 17.9%와 외부지향적 기대 28.3%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는 지지되었다.

<표 9>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빈도의 차이분석

	2회 이하	3회	4회	5회 이상	X^2
	N %	N %	N %	N %	df
학문적 기대	3 (3.2)	4 (4.3)	4 (4.3)	82 (88.2)	
내부지향적 기대	35 (33.0)	31 (29.2)	21 (19.8)	19 (17.9)	245.605***
외부지향적 기대	11 (11.1)	59 (59.6)	1 (1.0)	28 (28.3)	9
직업적 기대	4 (4.5)	1 (1.1)	1 (1.1)	83 (93.3)	
합 계	53 (13.7)	9 (24.5)	27 (7.0)	212 (54.8)	

***p<.001

다음으로 참여동기에 따른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참여동기에 따라 참여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p<.001),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65.7%가 일주일에 1회 참가시

5시간 이상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문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3시간이 92.5%, 내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은 2시간 이하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이 1회 참여시간을 가장 길게 선호하였다.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표 10>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시간의 차이분석

	2시간 이하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X^2
	N %	N %	N %	N %	df
학문적 기대	1 (1.1)	86 (92.5)	5 (5.4)	1 (1.1)	
내부지향적 기대	42 (39.6)	40 (37.7)	16 (15.1)	8 (7.5)	230.999***
외부지향적 기대	17 (17.2)	8 (8.1)	9 (9.1)	65 (65.7)	9
직업적 기대	16 (18.0)	24 (27.0)	16 (18.0)	33 (37.1)	
합 계	76 (19.6)	158 (40.8)	46 (11.9)	107 (27.6)	

***p<.001

다음으로 참여동기에 따른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참여동기에 따라 참여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p<.001), 내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84.9%가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문적 기대가 높은 집단이 37.6%,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이 21.2%, 직업적 기대가 높은 집단이 19.1% 순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직업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소극적 참여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56.2%로 나타나, 참여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3>은 지지되었다.

<표 11>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태도의 차이분석

	적극적	보통	소극적	X^2
	N %	N %	N %	df
학문적 기대	35 (37.6)	43 (46.2)	15 (16.1)	
내부지향적 기대	90 (84.9)	8 (7.5)	8 (8.5)	207.128***
외부지향적 기대	21 (21.2)	72 (72.7)	6 (6.1)	6
직업적 기대	17 (19.1)	22 (24.7)	50 (56.2)	
합 계	163 (42.1)	145 (37.5)	79 (20.4)	

***p<.001

(2) 가설 3의 검증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정도는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는라는 <가설 3>의 검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참여만족과의 상관분석

구 분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강사	직원 서비스	전체만족
참가빈도	.402***	.274**	-.284**	-.052	.455**	.319**
참여기간	-.003	-.085	-.048	.001	-.039	-.071
참가시간	-.268**	-.103*	-.468***	.147**	-.081	-.368**
참여태도	.104*	.031	.627***	.075	-.212**	.129*

*p<.05, **p<.01, ***p<.001

먼저 참여 빈도의 경우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만족도와는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전반적으로는 참가빈도가 많을수록 평생교육에 대한 전체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참가시간은 교·강사 만족도와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뿐,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환경,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체 만족도 역시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참여태도는 교육환경만족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원서비스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만족도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참여기간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만족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의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른 대학평생교육 실시의 효율화와 교육성과의 제고, 대학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평생교육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동기, 학습참여정도와 학습만족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라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만족영역에 차이검증결과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참여만족영역의 경우 학문적 기대가 높은 집단이 교육내용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교육환경에 대한 참여만족의 경우 내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이, 교·강사에 대한 참여만족의 경우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이, 직원서비스의 경우 직업적 기대가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른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정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빈도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p<.001), 학문적 기대와 직업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일주일에 5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지향적 기대와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동기에 따라 참여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p<.001),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65.7%가 일주일에 1회 참가 시 5시간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문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3시간, 내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은 2시간 이하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은 1회의 참여시간을 가장 길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동기에 따라 참여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p<.001), 내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문적 기대가 높은 집단,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은 집단, 직업적 기대가 높은 집단순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직업적 기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소극적 참여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56.2%로 나타나 참여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정도에 따른 참여만족도에 관한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참여빈도와 참여태도에 대한 참여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라 참여만족영역과 참여정도에서 나타나는 유의한 차이는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희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먼저 대학이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법체제에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평생교육법 제8조)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평생교육설치자는 지역사회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사회 및 프로그램 선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등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명 및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 평생교육기관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으나 질적으로는 대학별 특성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학

습자의 학습요구 및 참여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학평생교육은 소비자인 수강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운영자는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다양한 학습기회 및 프로그램 선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별 커리큘럼을 작성할 시 현재처럼 모방식 또는 주먹구구식(rule of thumb)의 커리큘럼 작성을 지양하고 참여동기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강사, 교육시간, 교육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 및 홍보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상담실 설치 및 상담을 위한 전문인원 배치가 필요하다. 평생교육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수강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교육기관의 특성소개 등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학습목표와 수학능력을 확인하고, 계획한 목적을 실현시키며, 성공적인 교육수료에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국가기관은 평생교육학습과정 이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제도를 통해 평생교육학습 의욕을 고취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학습에 관한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적 연구방법 외에 보다 심층적인 면접법, 참여관찰법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제기되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문제를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탐구해 나아가려는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 평생교육에만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진정한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대학평생교육원과의 프로그램 공조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강철룡. (1999). 실직자 재취직 직업훈련과정의 질적 수준과 교육 수준과 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인적자원부. (2002). 「평생교육백서」, 제6호.

김도수. (1997).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김신일. (1995). 학습권 개념내용과 교육학의 새 연구과제. 「평생교육연구원」, 제1권.

김종서 외. (2002). 「평생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진국. (2003). 스키장 동계리조트 이용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성의. (1995). 한국 성인의 사회교육 참여정도와 그 관련변인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낙돈. (1990).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교육학연구」, 제3호.

신현국. (2001). 중년여성을 위한 인터넷 교육 만족도와 개선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미란. (1997). 한국대학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진호. (1985).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 대은출판사.

최운실. (1986).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평생교육협의회. (2002). 제9회 하계실무자 세미나 자료집.

한준상. (2001).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 한국평생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황종건. (1994).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서울: 정민사.

Boshier. R. (1971). Motivational Orientations of Adult Education Participants: A Factor Analytic Explotion of Houle's Typology. *Adult Education Journal,* Vol. xxi. No. 2.

Burgess, P. (1971). Reasons for Adult Participation in Group Educational Activities. A*dult Education*, xxi. No. 1.

Caffarella, R. and O'donnell, J. M. (1991), Judging the Quality of Work-related. Self-directed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ume 42. NO. 1.

Dave. R. H. (1976).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Oxford : Pergamon Press and Hamburg* :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Rubenson, K. (1977). Participation in Recurrent Education: a Research Review. Paper Presented at Meeting of National Delegates on Developments in Recurrent Education, Paris March.

Wlodkowski R. (1993).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